

---

#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

2023. 11.



# 호주 해외전문체육훈련 결과보고

호주 해외전문체육훈련(10.27.~11.02.)의 주요활동 및 성과임

## □ 주요 성과 및 방문국 주요 정보

### 《 주요 성과 》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드니 공공 서비스 견문
- 도심속 문화, 경제, 자연환경 등을 두루 살펴보고 보유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도출

### ○ 경제분야

- 인구는 2,643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이나, 국내총생산(GDP)은 1조6,754억 달러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5천달러로 대한민국의 두배에 가까움.
- 제조업 기반은 취약하지만 풍부한 자원을 보유해 농축산업,광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 문화분야

- 모태국가가 영국인 만큼 영국문화가 기본 바탕이지만, 1970년대 대규모 이민정책으로 인하여 다민족·다문화 국가의 성격이 강함.

### ○ 국가청렴도

-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계 각국의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CPI)에서 13위를 차지하는 등 청렴도가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됨.

## I

# 해외견문체득훈련 주요내용 및 시사점

## 【1일차】

- 출국 항공기 탑승 (인천 → 시드니 : 약 10시간 소요)

## 【2일차】

### ○ 시드니 타운홀(시청) 및 시의회 방문

- 시드니 시의 공식적인 지방정부는 ‘시드니 시의회’이며, 4년 주기로 시장과 9명의 시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며, 9명의 시의원 중에 부시장을 선출함.
- 조례 입법, 행정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한국 시의회와는 개념이 다르며, 각각이 특정한 지역을 대표하지 않음 .
- 시청 공무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에 대해 채용 공고를 내고, 각 직군에 맞는 이력서 제출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여러 명을 모집하지는 않음.
- 시드니 타운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 보다는 ‘시민회관’의 역할에 더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시의회당, 리셉션장, 센테니얼 홀을 비롯한 9개의 대관용 홀을 운영하며, 시드니 시청의 앞쪽 계단은 많은 공공 시민행사의 무대로 활용되며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시청과 세인트 앤드류 성당 사이에는 작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음)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시청은 관공서, 행정기관 등의 다소 딱딱한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시드니의 타운홀은 다양한 장소를 시민들에게 대관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에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 깊었다.
- 부천시도 시청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시청을 시민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

각해 보았다. 또한 시청의 고전적인 모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빌딩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명소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 **【3일차】**

### ○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조개 껍데기 모양의 건물 뼈대 아래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극장과 공연장을 갖춘 복합건물임. 국제 공모를 거쳐 덴마크 건축가 『예른 웃손』이 설계하였으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정치 세력 쪽에서 선거에 패하게 되면서 예른 웃손은 사임했고, 그의 손을 떠나 7년이 지난 후 1973년 개관함.
- 200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주요시설 : 4개의 주 공연장과 2개의 소극장 · 콘서트홀 : 클래식 등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패션쇼 등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며, 객석은 2,690석. · 오페라극장 : 오페라와 발레 공연 위주 공연. · 드라마극장 : 드라마나 댄스 위주 공연. · 그밖에 연극 위주의 공연을 하는 연극관과, 소규모 공연이 개최되는 2개의 소극장이 있음.
- 지붕은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1백 5만개의 무광택 타일이 붙여져 있음.
- 콘서트홀 북쪽 로비는 하버브릿지와 시드니항이 잘 조망되는 곳으로, 공연 중에는 휴식시간 쉼터로, 공연이 없을 때에는 회의장소, 점심파티, 결혼식 등에 임대 가능하다고 함.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시드니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써, 시드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장소로 정평이 나있다. 부천시도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며 시민 및 다양한 외부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천시의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 개관한 수피아 식물원처럼 부천시만의 상징적인 관광지를 개발하면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 시드니 공영주차장 서비스

- 시드니의 스트리트 파킹은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담고 있어 이용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음. 2시간 주차할 수 있는 구역, 4시간 주차할 수 있는 구역 등 주차 가능 시간을 표현하고 요일별로 별도 명시해둠. 또한 파킹 머신을 설치해두어 인력 활용을 최소화함.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주정차 불가인 지역의 벌금은 약 272 호주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만큼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나가고 있어 질서정연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표지판마다 통일성이 있어 이용 고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 별도의 인력 운용 없이 파킹 머신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것 역시 인상적이었다.

## **[4일차]**

###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100km에 위치한 오억년전부터 형성된 산악지대로 백만ha에 이르는 울창한 숲과 사암절벽, 협곡, 폭포, 미개척삼림 등이 펼쳐져 있는 국립공원으로 2000년 세계자연유산 등록됨.
- 유칼립투스 잎의 수액에서 흘러나온 푸른 유액이 태양열로 인해 증발하면서 푸른 안개를 시키는 현상에 의해 블루마운틴이란 명칭이 붙음.

- 블루마운틴 산맥을 조망할 수 있는 에코전망대, 원주민의 슬픈 전설이 있는 세자매봉, 산 정상과 산 아래 산책로를 연결하는 경사52도의케도열차, 스닉케이블웨이, 협곡을 횡단하는 스닉스카이웨이, 유칼립투스 나무와 고사리 나무가 울창한 삼림 속에서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보드워크 등이 있음.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시드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개발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했다. 부천시는 좁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아 개발되지 않고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매우 적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역곡·대장 지구 개발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주택 및 시설물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

## **[5일차]**

### ○ 시드니대학교

- 시드니 대학교는 1850년에 설립되어,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임.
- 다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호주 사회인 만큼, 폭 넓고 다양한 문화와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관 및 대학들과의 활발한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성 추구하고 있음.
- 대학 조직 내부와 폭넓은 지역사회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의 결합을 통해 대학 생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글로벌 및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대학을 광범위한 관심 활동 및 의사소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지함.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및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유지되었던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변하고 있지 않아 아직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및 인종차별 등이 만연해 있으며 이러한 후진적인 국민 인식 수준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접목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 **【6일차】**

### ○ 시드니천문대

- 이탈리아 건축 양식으로 19세기에 지어진 천문대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됨. 망원경이 있는 2개의 돔과 4층 규모의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굴절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 기구를 볼 수 있음. 천문대의 역사와 별자리에 대한 설명, 3D 체험과 투어도 진행하고 있어 천체과학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됨.

### ○ 견문성과 및 시사점

- 유서깊은 문화유산과 함께 시드니 중심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 부천에서도 문화유산과 더불어 도심전경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 개발을 통하여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 **【7일차】**

### ○ 귀국 항공기 탑승 (시드니 → 인천 : 약 10시간 소요)

## II

## 호주 해외견문체득훈련 활동사진

### 【시드니 타운홀 방문】 ‘10. 28.’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휴일에 방문한 타운홀은 공공기관이라는 정적인 느낌 보다는 결혼식, 연회 등을 즐기는 문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 김정연 : 공공시설을 시민과 함께 사용하는 느낌이 강하였으며, 쇼핑과 관광을 함께 가능하게 한 주변 환경은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 신일균 : 시드니 중심에 위치한 타운홀은 외관이 아주 아름다웠다. 휴일엔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올해 진행했었던 ‘웨딩촬영 무료제공’과 같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 신지훈 :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인상적임

## 【오페라하우스】 '10. 29.'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도시를 넘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인상도 있지만 설계자와 관리자 모두가 후대를 생각해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 김정연 : 오페라 하우스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다양한 교통수단(버스, 트레인, 페리)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다. 또한 근처에 조성된 공원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조화로운 도시 모습이 돋보였다.
- 신일균 : 올해 개관 50주년을 맞은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어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았다. 2023년 5월 오픈한 '부천아트센터'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천의 랜드마크로 인식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신지훈 : 부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존재 했으면 함

## 【시드니 스트리트파킹】 ‘10. 29.’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주차사업부에 근무하고 있어 공영주차방법을 눈여겨 보게되었고, 대부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내판 구성, 결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김정연 : 호주의 공영주차장은 한국의 주차장과 느낌이 달랐다. 높은 주정차 위반 벌금의 효과인지 부정주차가 드물고 거리에 질서있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주차관리원을 쓰지 않고 무인 정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점은 우리 공사에서도 배울만한 점인 듯하다.
- 신일균 : 도심의 거의 모든 주차장이 무인 정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표지판에 다양한 필수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 신지훈 : 공영주차장 보다는 노상 주차장이 발달되어 있는 점이 특이했으며, 결제 시스템은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좋았다.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10. 30.'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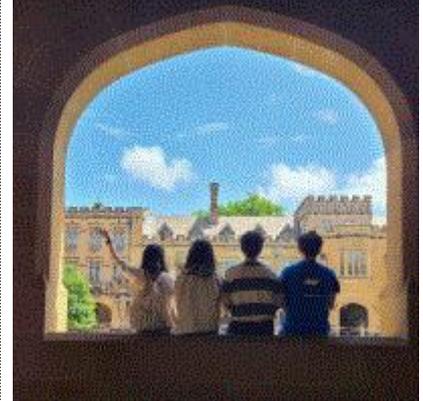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폐광단지를 무릉별유원지로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어 방문한 적이 있는데, 블루마운틴과 견주어 풍경 등이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홍보가 동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김정연 : 공기오염과 환경파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석탄광산을 폐광하고 지역을 관광 자원화함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 신일균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변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도 발달한 점이 인상 깊었다. 부천시도 '부천8경'과 같이 더 다양한 관광산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 신지훈 :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 인상적임

## 【시드니 대학교】 ‘10. 31.’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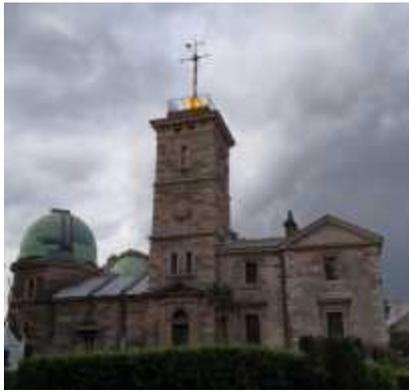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학교라는 점 외에도 그 공간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즐기며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돋보였다. 부천시와 시드니는 면적에서부터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지만,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 김정연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개의 대학에 선정된 시드니 대학교의 역사적인 건축물 및 조형물 등이 인상적이었고, 학생뿐 아니라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 신일균 : 해리포터 호그와트의 모티브답게 건물 자체가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시드니의 또 하나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부천시도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았다.
- 신지훈 : 고전 건물과 신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캠퍼스가 아름다움

## 【시드니 천문대】 ‘11. 01.’

○ 참석자 : 김수현, 김정연, 신일균, 신지훈



### “ 참석자 의견 ”

- 김수현 : 천문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관리가 잘되어 있었다.
- 김정연 : 유서깊은 문화유산과 전망에 펼쳐진 현대적 건축물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 부천에서도 역사 깊은 건물 등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든다면 문화도시 실현에 가까워질 듯하다.
- 신일균 : 다양한 용도를 거쳐 현재의 천문대가 되었다고 한다. 하버브리지, 루나파크 등 시드니 시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관광객들에게 더 유명했고 신혼부부들의 웨딩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인상적인 장소였다.
- 신지훈 : 유서깊은 문화유산에서 시내 중심가를 한눈에 조망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음